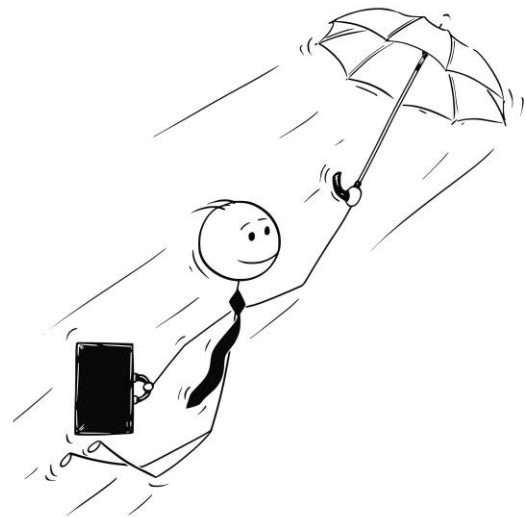




## [정규과정] 원천스토리로서의 만화 읽기

주제 : ‘원천스토리로서의 만화 읽기’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웹툰의 정의, 역사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 소개합니다.



튜터 임훈

## 웹툰(webtoon)의 정의

웹툰은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의미하는 ‘카툰(cartoon)’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웹툰은 플래시로 제작된 웹애니메이션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고 웹에서 형성된 모든 만화 형식을 대표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세로로 긴 이미지 파일 형식의 만화(cartoon)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웹툰이 사용되게 된 것은 2000년 8월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천리안에서 온라인으로 만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웹’과 ‘카툰’을 합하여 ‘천리안 웹툰’으로 명명한 것이 웹툰이라는 말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 웹툰의 역사

웹툰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해서이지만, 그 이전 만화가 인터넷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 시작한 건 <광수생각>이 연재된 1990년대 중후반부터이다. 이후 <스노우캣>, <마린 블루스>, <파페포포 메모리즈> 등 개인 블로거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된 다이어리 형식이 인기를 끌면서 캐릭터 중심의 만화가 웹툰의 대명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 인터넷 만화 사업에 뛰어든 포털사이트는 라이코스다.

2000년 6월에 온라인을 통한 무료 만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8월부터 포털사이트 천리안도 웹툰 서비스를 내놓았다. 이후 2002년에 야후 코리아가, 2003년에 다음이, 2004년에 네이버가 인터넷 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웹툰 시대로의 도입은 2003년 다음이 '미디어다음' 서비스 안에 '만화 속 세상'이라는 웹툰 연재 서비스를 개설하고, 강풀의 <순정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기존의 에피소드 형식의 웹툰이 아닌 서사를 가진 이 작품은 연재 기간 동안 조회수 6000만 회 이상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최초로 성공한 장편 웹툰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 웹툰 플랫폼

국내 웹툰 시장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포털사이트의 만화 코너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 플랫폼은 60개 가량이며 월간 페이지 뷰는 20억 회, 총 웹툰 작품 수는 8,797편, 웹툰 작가 수는 5,800여 명으로 집계된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웹툰 작품 수는 40배 이상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은 연간 1,000개 이상의 신규 작품이 출시되었다.

웹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웹툰 플랫폼 순위를 살펴보면, 네이버, 레진, 탑툰, 투믹스, 카카오페이지, 다음, 저스툰, 봄툰, 원스토어, 케이툰 순이다.

네이버의 웹트래픽(PV기준) 점유율은 53%이며 레진, 투믹스는 9%로 나타났고 플랫폼 방문자 수 비중에서는 네이버 43%, 레진 14%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기준)



### 〈참고 문헌〉

김기란, 최기호 (2009). 〈대중문화사전〉, 현실문화연구

정달해. '뜨는 웹툰, 뜨는 웹툰작가' 매일신문, 2016년 7월28일

한창완 (2013). 〈만화의 문화정치와 산업〉.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만화·웹툰 해외진출 성과조사 및 향후 진출방향 연구용역〉